2002년도 에너지자원분야 주요업무 계획

산업자원부

◈ **국제에너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**

- ○석유·천연가스 등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정착
- ○경쟁체제 도입으로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
- ○주요 자원보유국 및 소비국과의 에너지협력을 강화

◈ **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개발 추진**

가. 에너지 수급 안정기반 강화

(1)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

□ 석유공급 안정화 시책 지속 추진

- ●공동 비축사업 및 비축자산을 활용한 수익 확보 등을 통해 석유비축 물량을 대폭 확충하여 에너지 위기에 대비
  - *비축물량 : (01) 64백만배럴 (31일분) → (02) 74백만배럴 (35일분)
- ●원유도입의 중동 의존도 축소를 위한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속 추진 및 적정 수준의 장단기 도입비율(장기도입물량 비율 60%이상) 유지
- ●석유위기정보망(석유공사)을 활용한 모의실험 등을 통해 위기 대응능력 제고

□ 천연가스 수급 안정기반 구축

- ●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「제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」 수립
- ●통영 생산기지 준공, 강원권 및 수도권의 천연가스 배관망 건설 완료 등 천연가스 공급 인프라 지속 확충
  - *천연가스 배관망(누계) : (01) 2,380㎞ → (02) 2,442㎞

□ 전력수급 안정기반 강화

- ●중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발전설비 지속 확충
  - *발전설비 : (01) 5,086만㎾ → (02) 5,380만㎾
- ●전력산업 구조개편 등에 따른 전력수급 안정대

책 강구
- 자가발전사업 활성화 등 민간의 전력사업 참여 적극 유도
- 전력수요관리 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 도모

● 원전 신규부지(1개소) 및 방사성폐기물 시설부지 확보를 통해 원자력발전의 안정적 추진기반 구축

(2) 국내외 자원개발 활성화

□ 국내 대륙붕 개발 본격 추진

● 동해-1 가스전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(02.3월 기공식)

● 한·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(JDZ) 공동 개발 추진

□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

● 한·중·러 3국간 수행중인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, 사할린 가스전 프로젝트에 참여를 검토

● 페루 1-AB 생산광구 등 생산유전 매입을 적극 추진하여 자원의 자주개발율을 제고

□ 민간기업의 자원개발사업 참여 활성화 유도

● 전략광물자원 탐사사업에 성공불융자제도 도입

● 민간기업에 대한 자원개발기술·정보 등 지원기능 강화

(3) 에너지 안전관리 강화

□ 에너지 안전관리제도 개선

●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
- 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평가 실시 및 판매가격과 공급 설비가격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보완대책 강구

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세부지침 제정 등 안전관리 강화

□ 월드컵 및 아시안 게임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에너지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실시

전환 촉진

(1) 에너지절약 시책의 체계적 추진

□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시설투자·공정개선 추진

● 산업체의 자발적협약(VA) 체결을 확대하고 기존 협약체결 사업장에 대한 투자 및 이행실적 관리 강화

● 대형 건물, 아파트 등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(ESCO)의 활성화 (02 : 640건, 990억원 투자)

● 에너지절약 잠재량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효율

등급·고효율기자재·절전형기기 제도 등의 대상품목을 확대

□ 가정·수송부문 등 부문별 에너지절약시스템 강화

- ●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집단에너지 사업 확대
  - 지역난방 보급 확대 : (01) 107만 세대 → (02) 115만 세대
- ●수송에너지 절감 노력 강화
  - 기업평균연비제도(CAFE)의 단계적 도입 및 한국형 연비모드 마련
  - 경차에 대한 취득세·등록세 및 자동차세 세율 하향 조정 추진

□ 소비자의 자발적 에너지절약 유도

- ●전기·가스·수도 등 가정의 에너지사용량과 비용을 쉽게 알 수 있는 「통합 Energy Monitoring System」 개발 및 보급
- ●에너지절약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운동 지속 추진

(2)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

□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

- ●태양광, 풍력, 연료전지, 지열 등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투자 효과 극대화 (02~04 : 258억원)
- ●대체에너지기술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기술 표준화를 통해 기술개발의 활용도 제고

□ 대체에너지 시장기반 조성

- ●대체에너지이용 발전 전력 우선 구매제도 실시
  -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의 기준가격 고시 및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 지원
- ●대체에너지 발전 전력을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높은 가격에 구입하는 Green Pricing제도 도입
- ●APEC 대체에너지 전시회 개최(02. 하반기, 서울)로 해외시장 개척

□ 경제성있는 대체에너지의 보급 확대

- ●대관령 민자 풍력발전단지 건설 추진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체에너지 보급 사업 활성화
- ●대체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「Green Village」 조성 확대
  - 2개 지역의 Green Village내 주택에 3kW급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

(3) 기후변화협약에의 적극 대응

□ 교토의정서 체제 출범에 따른 국내 이행기반 구축

- ●온실가스규제 가시화 등 최근의 여건 변화를

「제2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」 수립시 적극 반영

- ●산업계 등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기록, 관리하는 온실가스 국가등록시스템을 2004년까지 구축
- ●청정개발체제(CDM) 사업추진 기반구축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이 국제운영기구로 지정받도록 추진

□ 선진국의 의무부담 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응

- ●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
  -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별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
- ●산업계의 대응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
  - 철강, 석유화학 등 업종별 대책반을 구성하여 산업별 온실가스 절감량 산출, 자발적 협약 및 청정개발사업 참여 등 지원
- ●멕시코 등 선발 개도국과의 공동 대응방안 모색
  - 멕시코 에너지부와 공동 세미나 개최 (02.4월)

다.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

(1) 전력산업의 경쟁시스템 구축

□ 화력발전회사 및 한전 기존 자회사의 민영화 추진

- ●전력시장의 경쟁 구축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5개 화력발전회사의 민영화 추진
  - 우선 2개사를 대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, 나머지 3개사는 2005년까지 착수
- ●한전기술, 한전기공, 파워콤, 한전산업개발 등 한전 기존 자회사의 민영화 완료

□ 도매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2단계 구조개편 적극 추진

- ●배전부문을 5~7개의 독립 배전회사로 분할 추진
- ●양방향 입찰시장 구축 및 합리적인 전력시장 운영시스템 마련

□ 구조개편에 따른 보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

- ●현행 용도별 요금체계를 원가를 반영한 요금체계로 단계적 개편
- ●전력분야 공익사업 추진 및 전력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「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」 수립·추진
  - 전력산업 연구개발,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및 도서·벽지지역의 전력공급 등 공익사업 지속 추진

(2) 가스산업 구조개편 및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추진

□ 가스공사 및 자회사의 민영화 본격 추진

- 구조개편 이후 가스공사와 자회사에 대한 적정 소유지배 구조 및 구체적인 매각방안 마련 (02.1/4분기)
  - 主幹社 선정 등을 통해 매각 완료 (02년말)
-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 3개 법률(안)의 하위 규정 제·개정 추진
  - 가스시장 운영규칙 및 가스계통 운영규칙 등 제정

□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및 난방요금 적정화 추진

- 지역난방공사의 주식상장 및 지분매각 추진
- 발전회사와의 수열단가 조정에 따른 요금인상요인은 주식 매각수익으로 일부 흡수하고, 요금의 단계적 안정화 추진

(3) 석탄산업의 합리화 촉진

□ 석탄산업 합리화 지속 추진

- 2005년까지 300만톤 내외로 생산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
  * (01) 383만톤 → (02) 337만톤 → (05) 300만톤 내외
- 민영탄광은 비능률 탄광을 중심으로 순차적 감산·폐광 추진

□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적극 지원

- 폐광지역 카지노를 국제규모의 종합관광단지로 개발
- 탄광지역 및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

(4) 에너지시장의 공정경쟁여건 조성

□ 에너지 시장기능 활성화

- 전력거래소를 공정·투명하게 운영하고 가스거래소를 신규 설립하여 경쟁효과 극대화 및 공정거래체제 구축
- 사적 계약에 의한 주유소 상표표시제도(01.9월)의 정착 유도
- 석유 전자상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정유사와 大수요처의 전자상거래시장 참여 및 업체간 상호협력을 유도
- LPG 판매사업자 업무범위 확대, 충전량 등의 용기표시 방법 등 LPG 유통체제 개선

□ 에너지시장의 공정경쟁여건 조성

- 석유시장의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가격담합·덤핑 등 시장교란행위에 적극 대처
  - 주유소를 중심으로 생산·수입 및 유통단계의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유사 석유제품 유통을 근절
- 전력·가스분야 공정경쟁을 위해 전기위원회를 에너지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인 시장감시체제 구축
  - 시장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마련

하고 정기적인 시장감시계획 수립 및 시행

라. 에너지 국제협력 강화

(1) 자원보유국 및 주요 소비국과의 협력 강화

□ 동북아 에너지협력 활성화

- 「동북아 에너지협력체(가칭)」 설립 추진
  - 동북아 국가의 에너지 수급상황, 법규 및 제도 등에 대한 DB 구축 추진 및 정책담당자, 민간기업 등의 네트워크 구축
-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위한 역내 국가간 공동 연구과제 개발
- 동북아 공동협력을 통한 중동 원유 도입단가 인하 도모
  - 동북아 3국의 중동원유 도입단가 실태조사 실시 및 도입단가 인하를 위한 공동 대응체제 구축

□ 산유국 및 석유 소비국과의 협력 증진

- 고위인사 중동순방 활동, 산유국 관계장관 초청 등을 통해 對산유국 유대 강화
- 「APEC 에너지장관회의」(02.7월, 멕시코) 등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요 에너지 소비국과의 협력기반 구축

□ 자원보유국과의 협력위원회 활성화

- 중국·러시아·베트남 등과 신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관심기업의 참여를 확대
  - 러시아, 호주, 베트남 등 6개국과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
- 카자흐스탄 등 전략지역에 대한 자원협력위원회를 신설

□ 에너지분야 국제규범 설정에 적극 참여

- 국제에너지기구(IEA) 제반 사업에의 참여 확대
  - 주요 에너지 소비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, IEA 에너지 신기술 공동연구사업에 적극 참여
- 「WTO 에너지서비스 협상」에 적극 대처
  - 에너지서비스 분야별 개방일정 및 양허 대책 마련

(2) 에너지산업의 수출화 전략 적극 추진

□ 에너지산업의 수출 산업화

- 전력산업 수출산업화 지원을 위해 「전력산업수출협의체」를 구성·운영
- 「해외원전진출추진위원회」를 활성화하여 국제원전시장 동향분석 및 국별 진출전략 수립

□ 에너지수입 및 해외자원개발과 연계한 대응 수출 노력 강화

- 에너지도입국의 대형 사업을 상시 파악하여 에너지 수입에 따른 교섭력을 활용, 기업의 진출을 지원
-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국내 설명회 개최를 통해 플랜트 수출 기회를 확대